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제103(2014)년 신년사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안아오기 위한 선결조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신년사에서 올해에 조국
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
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남사
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
기를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북남사이에 관계개선의 분
위기를 마련하는것은 자주
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
을 열어나가기 위한 선결조
건이다.

북남관계는 피를 나눈 동
족사이의 관계, 함께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
이다.

북과 남사이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
러가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민족이 갈
라져 살아가 할 조건으로는
될수 없으며 하나의 민족으
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북남관계의 개선이 없이

민족의 화합과 통일, 평화변
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어야 나
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제기
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
사와 리익에 맞게 옳바로 풀
어나갈수 있다. 6.15시대에
우리 민족을 격동과 환희로
끓여번지게 한 경이적인 사
변들은 북남관계개선에 있고
나의 화해와 단합도 있고 나
라의 통일과 평화변영도 있
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
었다.

남조선당국의 반북대결정
책은 북과 남사이에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북남사이에 진정한 신뢰가
조성되자면 동족에 대한 비
방과 대결책동이 중지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제도를 비방
중상하고 민족문제, 북남관
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것
은 《신뢰》가 아니라 민족

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태에
국행위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
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용납
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
에게 어부지리를 쏘는것이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
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척전
환을 하여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다
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
의 관계로 개선되게 될것이
며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동족
대결과 《종북》소동을 벌리
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거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
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

공화국은 민족을 중시하
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
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
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
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라는 립장을
여러차례 표시하였다. 남조
선당국은 공화국의 중대제안
과 공개서한에 담긴 북남관
계개선의지를 바로 보고 결
단을 내려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
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
을 위한 거족적투쟁을 힘
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올해
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기어이 열어나
갈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화해의 순을 잡아야

우리 민족에게 해아
릴수 없는 불행과 고
통만을 강요하고있는
분렬의 력사는 70년
세월을 가까이 하고
있다.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수십년
간 공화국은 북남관
계를 개선하여 민족
적화합과 조국의 자
주적평화통일을 이룩
하기 위하여 진지하
고도 시종일관한 노
력을 기울여왔다.

공화국의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
하여 1948년 4월 평양
에서는 남북조선 정
당, 사회단체 대표자
련석회의가 열렸으며
며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선인민자
신의 손으로 민주주
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이
라는것을 엄숙히 선
언하였다.

민족의 요구와 리익
을 첫자리에 놓고 통
일위업실현에 모든것
을 복속시켜나가는 공
화국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지
난 세기 70년대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
을 북과 남이 확약한 7.4공동성
명이 발표되어 온 겨레의 가슴
을 통일의 환희로 끓여번지게 하
였다.

새 세기의 지평이 열리는
2000년 6월에 우리 민족끼리
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
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끓어오른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는 경이적인 사변들로 아로
새겨진 6.15통일시대는 수십년
간 쌓여온 불신과 대결의 감정
을 물론늑이듯 털어버린 감격과
격동의 순간들의 련속이었다.
온 겨레가 손에 손을 잡고 삼천
리 방방곡곡에서 장엄한 통일대
진군을 벌려온 그 나날들에 북
과 남사이에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인 10.4선
언도 채택발표되었다.

남조선에서 6.15통일시대
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
는 경우우수세력의 집권으로 말
미암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
화와 통일로 나아가던 우리 겨
레의 통일진군길에 엄중한 난
관이 조성되었지만 조국통일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립각하여 조국을 통일하려는 공
도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
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
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합과 통
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와 야망
에 진정으로 화답하여야 하며 불
신과 대결의 독은 칼을 버리고 동
족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잡아
야 한다.
공화국은 나라의 통일과 평화
변영을 바라는 해내외의 전체 조
선민족과 함께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인들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줄것이다.

무회담끝에 개성공업지구정상
화를 이룩하는 등 북남관계개선
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새해에도 공화국은 력사적인
신년사를 통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문
제 등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앞
길을 제시하였다. 얼마전 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들을 전
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실행,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대
행위 전면중지,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조치
를 취해나가는것을 내용으로 한
중대제안을 남조선당국에 정식 제
의하고 련이어 공개서한을 발표
한것도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자세와 노력의 표시이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
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지난날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
도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
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
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합과 통
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와 야망
에 진정으로 화답하여야 하며 불
신과 대결의 독은 칼을 버리고 동
족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을 잡아
야 한다.

공화국은 나라의 통일과 평화
변영을 바라는 해내외의 전체 조
선민족과 함께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인들의 기치
높이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줄것이다.

서철수

필승의 신념을 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조국통일을 성취하자

해외동포들의 강렬한 통일열망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
에 새로운 전진을 이
룩할데 대하여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뜨
거운 감격과 환희속에 반
아이는 해외동포들속에서
통일열망이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온 겨레와 더불어
재일동포들을 자주통
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
적기치, 승리의 기치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애국의 열정으로

년원에 도전하여 년초부터
학약내를 풍기면서 군사연
습을 벌려놓고있는데 대해
로써 야고려인통일련합회
가 강력히 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
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외
세주종에서 벗어나 화해와
민족공영, 평화를 요구하
는 온 겨레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
의 길에 성실히 나설것을
단체는 요구하였다. 우
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
회 위원장과 기르키즈스탄
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은 반목과 질시를 더이상
허용하지 말며 민족의 화
해를 이룩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시대
의 절박한 과업이다, 북남
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

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
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
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족이
바라는것은 북과 남이 화
해하여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관통하고있는 우리 민족끼
리의 리념에 따라 하루빨
리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
외본부 의장은 우리에게
통일운동에서 이룩한 소중
한 투쟁경험이 있으며 온
민족이 합의를 민족통일대
강이 있기에 승리는 필연
적이라고 확인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유
럽지역본부와 재도이쉴란
드동포협력회, 재로조선

공민중앙협회도 온 겨레와
함께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
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
차게 떨쳐나설 의지를 표
명하였다.

재일동포인러네트신문
《민족통신》대표는 올해
해외동포들속에서 통일열
망이 강렬해지고있다고 하
면서 해내외의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수 있다고 확인
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래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굳게 뭉쳐 거족
적인 통일운동을 앙양시켜
나가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
이 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벌써 69년의 년륜을 새
기고있지만 아직도 우리 겨
레의 소망인 조국통일은 이
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북남관
계도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
고있다.

오늘날 조국평우에 무겁게
드러온 대결과 전쟁의 위협
을 가시고 화해와 협력, 평
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는것은 우리 겨레의 한
결같은 열망이다.

겨레의 지향과 념원대로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자
주통일과 평화변영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자면 민족공
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
선언이 철저히 고수, 리행되
여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
변영의 열쇠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은 대화와 협력, 대량과 교
류의 넓은 길을 열어줌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
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을 활
짝 열어놓았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과 남은 우리 민족끼리정
신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적
극 추진하였다. 북남대화의
소모적인 논쟁의 과정이 아
니라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
제들을 해결하는 의의있는 대
화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
각 방면에 걸쳐 협력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해소되어갔다.

북남간간단체들사이의 래
왕과 교류의 길이 넓어지는
속에 중요한 계기들마다 민
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해내외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
련합이 강화되었다.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던 남조선의
수많은 기업들이 북남경
제협력의 혜택속에 공동변영
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민족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6.15의 기치아래 활력있
는 발전의 길을 걸은 북
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
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
서게 되었다. 6.15공동선언
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
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담은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새
로운 토대를 닦고 자주통일
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민
족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
고 하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과 평화변영에 대한 온
겨레의 생활적요구와 리해관
계를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
도 북남공동선언들을 대신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펴
쳐졌던 환희의 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들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
의 우리 민족에게 공감될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
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
국통일의 기치라는것을 뚜렷
이 실증해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에 대한 태도는 민족의 화해
와 단합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대화과 대결, 평화와 전쟁
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
로 된다. 선언들을 부정적으
로 대하며 그 리행을 거부하
면 대결과 북남관계의 파괴
를 피할수 없다. 모처럼 마

련되었던 북남대화가 파란되
고 북남관계가 다시 최악의
대결상태로 돌아간 지난 1년
간이 교훈으로 가르쳐주는것
은 공동선언의 존중과 리행
을 떠나서 북남관계의 옳바
른 수립과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은 새해에
들어와 외세를 배격하고 공
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
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
지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조
소하였다.

진정으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
이라면 마땅히 6.15공동선언
과 10.4선언리행을 위한 투
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그릇
된 대결관념에서 벗어나 민
족의 리익을 첫치라야 놓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
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
남공동선언들을 높이 추켜들
고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을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앞길을 기어이
열어나갈것이다.

림소영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
선하자면 백해무익한 비방중
상을 끝장내야 한다.
비방중상은 동족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적의식의 발로
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저해
하는 요인이다.

지금 북과 남의 온 겨레
는 민족의 화해와 단
합을 바라며 하루빨
리 나라가 통일될
를 념원하고있다. 비

며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
표이후 상대방을 비방중상하
는 일체 모든것을 중지함으
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발전을 적
극 추동하였다.

그러나 오늘 북남사이에
는 비방중상의 불미스러운 력사

관계개선의 첫걸음

가 재현되고 그것이 날로 더
욱 심해져 대결을 격화시키고
고 겨레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있다.

이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일들은 이제 더이상 지속되
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중지는 관계
개선의향의 표시이고 그것이
요일대로 요일 북남관계를
부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

《한》 미련합천전연습 《워
싱턴포스트》를 중단했던 전
례도 있지 않은가.》라며
《리산가족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정부》가 정밀 리산
가족문제를 꼭 필요한 인도
적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금강
산관광문제에 대해 논의하
는 가운데 추진하면 될 일》이
고 설명했다.

대결을 격화시키는 백해무익
한 비방중상은 더이상 허용
될수 없다.

바로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중
대제안을 통하여 음력설명절
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
를 취하자는것을 남조선당국
에 정식으로 제의하였다.

후러는 북남관계사는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성

피해를 이어받고 찬란한 민
족문화를 꽃피우며 한강토에
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
다. 우리 민족이 근 70년세
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사는
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민족
의 분렬을 심화시키고 동족

하나는 비방중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이룩
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
여주고있다.

대결시대의 타성과 동족
에 대한 거부감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동족과 화해하
고 단합하여 통일에
로 나아가լ 용단을 내
리는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이다.

비방중상의 증지는 북남관
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조치로 된다.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중
대시키고 대결과 적대감을
고착시키는 비방중상을 끝장
낼 때 북남관계개선의 분위
기도 마련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도 펼쳐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